

## 배우자 사별노인의 우울과 적응유연성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김 신 열\*  
(전북대학교)

김 순 규  
(전북대학교)

서 효 정  
(순천제일대학)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로 인해 우울이라는 심리적 위험상황에 처한 노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특성, 즉, 노인의 적응유연성과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전라북도 K시 19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서 배우자와 사별을 경험한 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1면접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우울이라는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우울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증의 위험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우울이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우울, 매개효과

\* 교신저자: 김신열, 전북대학교 (sykim@jbnu.ac.kr)

■ 투고일: 2011.7.29    ■ 수정일: 2011.9.20    ■ 게재확정일: 2011.9.21

## I. 서론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노년기는 인간의 생활주기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되는 단계이며 동시에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가 되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상실과 이로 인한 경제적 능력 저하를 경험하며, 성인이 된 자녀들의 출가와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관계의 축소 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사회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수 십 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사별과 같은 심각한 1차적 관계의 단절 위기를 경험한 노인의 경우에는 노년기라는 발달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변화 등과 같은 다른 위험요소들과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배우자 사별 노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대개 배우자 사별은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슬픔, 외로움 그리고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득감소, 사회적 관계의 축소 등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주기 때문에 노년기의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김태현·한혜신, 1996: 18-19; 전길양·김정옥, 2000; 김승현 외, 2007; 손의성, 2007; 손의성, 2008; Hardy et al., 2004; Richardson, 2006; Brown et al., 2008). 특히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비교해 보더라도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이 더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며, 이러한 위험은 남아 있는 배우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이영자, 1999; Tower & Kasl, 1996). 예컨대,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보다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역할 수행의 어려움, 대화 상실 및 정신적 의지의 상실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높은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것이다(전길양·김정옥, 2000; 손의성, 2008; Carnelley et al., 1999; Brown et al., 2008). 더구나 노년기 우울증상은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살생각 등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이미애·남기민, 2007; 김신열 외, 2011; Waern et al., 2003)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

1) 2009년 현재로 우리나라 노인인구가운데 42.9%에 달하는 약 180여만 명의 노인이 배우자를 사별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남자 배우자가 사망한 남자사별노인은 230,544명으로 12.3%, 여자사별노인은 1,644,151명으로 87.7%에 이르고 있다(2010, 통계청).

배우자 사별 노인에 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그동안 이루어진 배우자 사별 노인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먼저 노년기 배우자 사별이 하나의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작용하면서 노인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 우울과 같은 적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노인 개인의 다양한 대처 방식이나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체계 등으로부터 찾고자 하였다(전길양·김정옥, 2000; 김승현 외, 2007; 손의성, 2007; 임연옥 외, 2010).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노인들이 모두 그들의 일상생활에 항상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의 사별이 모든 노인에게 다른 스트레스 상황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인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외국 연구들은 우울로 대표되는 배우자 사별로 인한 심리·정서적 부적응을 잘 극복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찾고 이들 요인이 배우자 사별로 인한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중재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들 연구는 배우자 사별로 인한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노인의 특성인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배우자 사별이라는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적응유연성(Resilience)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Norris & Murrell, 1987; Parkes, 1988; Schoon & Bynner, 2003; Hardy et al., 2004; Rossi & Bisconti, 2007; Wallace et al., 2001). 즉 배우자 사별이라는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발달단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노인의 인성적 특성으로서 적응유연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이러한 노인의 적응유연성이 배우자 사별로 인한 본래의 상실감이나 부정적 변화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할지라도 노인에게 닥친 배우자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서 잃기 쉬운 기능수준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개인적인 능력을 갖추는데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Wallace et al., 2001; Rossi & Bisconti, 2007).

한편 적응유연성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지지이다(김기태·박미진, 2005; Wilks & Croon, 2008; Wilks & Spivey, 2010). 229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와 적응유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Wilks & Croon(2008)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터의 지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들 자신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낮고 반면에 적응 유연성은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Wallace(1999)는 노인이 갖는 탄력성의 주요한 근원으로서 노인이 갖는 개인적인 관계의 질을 강조하면서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더 탄력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김기태·박미진 2005: 75에서 재인용), 이는 결국 배우자 사별 노인이 갖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 즉 우울과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한 노인의 적응유연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배우자 사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결과로서 우울을 극복해 내는데 노인의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지지가 갖는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연구는 외국에서처럼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한국 여성 노인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한 강유진(2004)의 연구, 여성노인의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와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김기태·박미진(2005)의 연구, 노인 우울 예방을 위한 탄력성 증진모형을 검토한 박미진(2006)의 연구,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적응유연성의 관계를 분석한 정미경·이규미(2010)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기존 연구는 일반 노인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을 뿐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비교해 보더라도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이 더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며, 이러한 위험은 남아 있는 배우자의 삶의 질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이영자, 1999; Tower & Kasl, 1996)는 점을 고려한다면 배우자 사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노년기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우울이라는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와 적응유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우자 사별의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후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적응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사별로 인한 노인 우울이 노인의 적응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배우자 사별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적응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이 노인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

많은 연구들이 배우자 사별 노인이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12명의 배우자 사별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Futterman et al.(1990)은 대개 12% 정도의 배우자 사별 노인들이 배우자 사망이후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증이 다른 일반 노인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Richardson, 2006). Zisook & Shuchter(1991)는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 차례의 조사(2개월 후, 7개월 후, 13개월 후)에서 각각 24%, 23%, 16%의 높은 우울증상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높은 우울증상은 일반 노인들과 비교할 때 약 4% 이상 높게 나타났다. Carnelley et al.(1999) 또한 배우자 사별 노인의 높은 우울증상이 많게는 3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배우자 사별 노인이 그렇지 않은 일반 노인들에 비해 훨씬 높은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손의성(2008)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사별노인 415명의 우울 전체 평균이 7.28(15점 만점)<sup>2)</sup>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우울로 나타났으며, 김승연 외의 연구(2007)에서도 조사대상인 배우자 사별 노인의 59.7%가 우울 성향(6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33.7%가 15점 만점에 10점 이상으로 나타나 배우자 사별노인이 심각한 우울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배우자 사별 노인의 높은 우울 성향은 일반 노인의 우울성향 비율과는 확실히 대조적인데, 예를 들어 송미령 외의 연구(2010)에서는 40.9%가 우울의심 대상 노인 이었던 사실에 비하면 배우자 사별노인의 경우에는 무려 20% 이상 높은 비율의 우울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사별 노인의 높은 우울증상은 대체로 살아남은 배우자로 하여금 정서적 외로

---

2) 노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척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과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등 두 가지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대부분 단축형 척도를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GDS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경우 15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0-5점은 정상으로, 6-9점은 중등도 우울증상으로, 그리고 10점 이상은 우울증으로 판단한다(김승연 외, 2007: 579).

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타난다(김선영, 1991; Bankoff, 1983; Lund et al., 1986; Atchley, 1994). 비록 사별 직후에 느끼는 정서적 충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지만 외로움, 공허함, 슬픔은 사별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사별에 대한 연구들은 사별 후 1, 2년 사이에 사별자들이 새로운 지위에 적응하고 익숙하게 된다고 보고 있으나(Bankoff, 1983; Morgan, 1989) 개인에 따라 장기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16년 동안 혼자였던 사람들에게서도 초기 이별에서 나타난 외로움과 불행감이 지속되기도 한다(Lund et al., 1986 에서 재인용). 1985년부터 1993년까지 8년 동안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Bennett(1997)도 배우자 사별 이후 높아졌던 우울 증상은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별 노인의 높은 우울증상은 대체로 과거 배우자가 담당했거나 배우자와 함께 분담했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Lund et al., 1986; Pitcher & Larson, 1989; Lopata, 1993). 예를 들어 Lund et al.(1986)는 배우자 사별 후 남성은 식사준비, 집청소, 장보기 등의 역할을 새롭게 수행하게 되며, 여성은 집수리, 돈 관리 등을 사별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직접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러한 일상적인 역할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것이 배우자 사별 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Umberson et al., 1992).

배우자 사별노인의 우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비록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배우자를 사별한 이후에도 심각한 우울증상에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되지만 앞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배우자 사별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생에 있어서 배우자 사별이라는 매우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 하면서도 어떤 노인들은 전혀 우울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비교적 낮은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가 하면 배우자 사별 경험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심각한 우울증상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사별 노인들이 갖는 적응유연성에서 찾고자 하며, 적응유연성을 갖고 있는 배우자 사별 노인이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온 우울증상을 극복해 내는지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배우자 사별노인의 적응유연성

일반적으로 적응유연성 개념은 본래 아동·청소년 발달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노인에게까지 그 관심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Richardson, 2006; Lamond et al., 2009). 따라서 적응유연성에 대한 정의도 여러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발달과 적응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위험상황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거나 이전 기능으로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Rutter, 1999; Luthar et al., 2000; Hardy et al., 2004).

배우자 사별 노인에게 있어서 적응유연성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Richardson(2006)에 의하면 적응유연성을 갖는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 죽음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고, 보다 더 외향적이며, 감정적 측면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수 있다는 것이다. Mehta et al.(2008)도 노인의 우울증과 적응유연성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면서 노년기에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부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적응하는데 적응유연성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Rossi & Bisconti(2007)는 배우자 사별 이후 적응유연성이 하나의 보호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노년기 생애만족 정도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배우자를 사별한지 한 달 이내인 55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적응유연성이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와 그 결과사이에서 중재(mediating)와 완충(moderating)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 외국연구와 달리 노인의 적응유연성 관련 국내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여성노인의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와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김기태·박미진(2005)의 연구와 노인 우울 예방을 위한 탄력성 증진모형을 검토한 박미진(2006)의 연구,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적응유연성의 관계를 분석한 정미경·이규미(2010)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들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부적응 현상인 우울과 그 원인으로서의 일상생활로부터의 스트레스간의 관계에 있어서 적응유연성이 갖는 의미를 밝혀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적응유연성을 포함한 여타의 보호요인들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확인해 봄으로써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개입전략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존 연구는 일반 노인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일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비교해 보더라도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이 더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며, 이러한 위협은 남아 있는 배우자의 삶의 질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이영자, 1999; Tower & Kasl, 1996)는 점을 고려한다면 배우자 사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적응유연성은 크게 두가지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행동하는 결과로서 적응유연성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위협요인과 보호요인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서 적응유연성이다(Olsson et al., 2003). 특히, 결과로서 적응유연성은 분명한 위협상황을 전제로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특성으로 정의되고, 과정으로서 적응유연성은 위협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특성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이라는 위협상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인 노인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결과로서 적응유연성이 적절하다고 본다.

### 3. 노인의 배우자 사별과 사회적 지지

많은 연구들이 노인들에게 있어서의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안녕에 중요한 영향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Rudkin, 2006).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Kim(2002)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유형(type)이나 정도(quantity)로 파악되는 구조적 차원(structural aspect)과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내지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능적 차원(functional aspect)으로 구분하면서 이들 사회적 지지가 특히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Richardson(2006)은 이러한 노년기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일반 노인들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별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안녕(well-being)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Wallace et al.(2001)은 특히 사회적 지지 가운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가 적응유연성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노년기 개인의 인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기능함을 밝히고 있다. Koren & Lowenstein(2008)도 배우자 사별 노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에 의한 양적 혹은 질적 차원에 있어서의 원조관계가 남아있는 노인의 삶의 의미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나 그들로부터의 지원은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에게 자신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나 도움이 가능할 거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면접촉이나, 전화, 편지, 혹은 이메일 등 다양한 접촉 기제를 통한 사회적 접촉은 사회적 고립감이나 고독감 등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Guiaux et al., 2007: 458).

노인의 배우자 사별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먼저 전길양과 김정옥(2000)은 사별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정서, 물질, 평가, 그리고 정보적 지지로 나누고 이들 개별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 보았는데 물질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밝혔다. 김승연 외(2007)에서는 배우자의 사별 후 겪게 되는 경제적 문제와 우울증상, 그리고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 본 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낮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한편, 임연옥 외(2010)는 배우자 사별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도 노인 개개인의 시간적 내지 내외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사별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변화와 더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 본대로 배우자 사별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주로 개인의 우울이라는 배우자 사별로 인한 정신적 부적응 상태에 대한 보호 기제로서의 역할에 관심이 있을 뿐 노인의 적응유연성과 같은 개인의 적극적인 반응 측면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배우자 사별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특히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측정하는데 있어 주로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을 뿐 위험이 실제로 닦쳤을 때 그러한 지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Lin & Ensel(1999)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측정 할 때에는 측정 대상자가 현재 도움(support)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

황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회적 지지(Perceived crisis support)와 그러한 위협상황에 처했을 경우 실제로 지지를 받은 경험(Actual crisis support)이 있는가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배우자 사별이라는 생애 주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 역시 두 가지 가능한 차원에서의 고찰이 무엇보다도 설득력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4.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적응유연성과의 관계

먼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상실과 이로 인한 노인의 우울증이 노년기 그들의 적응유연성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Felton & Hall(2001)과 Smith(2009)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Felton & Hall(2001)은 특히 여성노인에게 있어서의 적응유연성은 그 맥락(context)에 따라 하나의 반응(response)이나, 과정(process) 또는 결과(outcome)으로 적응(imply)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적응유연성은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기능(function)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pp.50-51). 이들은 85세가 넘는 초고령 노인에게도 적응유연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그룹홈에 살고 있는 여성노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노년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과의 사별이나 개인의 신체적 질병 등으로 우울증, 화(anger), 삶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적응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화된 적응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대처(cope)방식 강화, 가족의 지지 확대, 자기보호 활동 등과 관련한 개입을 통해 적응유연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mith(2009) 역시 노인의 우울증이 그들의 적응유연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predictor) 가운데 하나임을 158명의 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sup>3)</sup>. 그에 의하면 우울증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그들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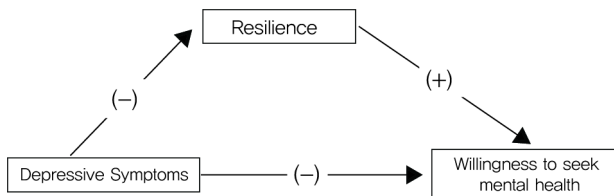
3) Smith(2009)는 노인의 우울증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Felton & Hall(2001)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predicts resilience which, than predicts willingness to seek mental health car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is viewed to negatively affect resilience(felton & Hall 2001).”(p.831)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우울증으로 인해 약화된 적응유연성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Smith, 2009: 831). 다시 말해서 노년기 우울증은 노인들의 적응유연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노인 스스로가 정신건강을 되찾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sup>4)</sup>.

한편,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노년기 노인들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Blazer, 1983; Kim, 2002; Wilby, 2011). 예를 들어 우울과 같이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 연결망과의 관계가 소원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Wilby, 2011). 특히 331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30개월 동안 두 단계로 나누어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의 변화를 조사한 Blazer(1983)에 의하면, 초기 조사시점과 30개월 이후의 조사시점 모두에서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지가 많이 손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우울증을 갖고 있는 노인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를 회피하거나 또는 사회적 지지 연결망 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경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그 자체가 사회적 지지 관계망의 규모나 긍정적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 이른바 사회적 지지와 정신적 건강 사이의 역전관계(reversed relationship)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Blazer, 1983: 162).

배우자 사별이라는 노인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스트레스의 심리적 결과물로서의 우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는 이론으로는 Ensel & Lin(1991)의 생애 스트레스 이론(life stress paradigm)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4) 이러한 분석을 위해 Smith(2009)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p.831 Figure 1참조)



는 스트레스 요인(stressors), 그로 인한 신체적 내지 정신적 건강상태(health outcome)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건강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원들(resources)에 의해서 설명된다(Wilks & Croon, 2008). 다시 말해 이들 세 요소들 간의 관계는 배우자 사별과 같은 스트레스 위험요인으로 말미암아 노인들은 우울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때 노인이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인이 바로 적응유연성이며, 이 적응유연성은 무엇보다도 노인의 내재적 특성보다는 노인이 갖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Wilks & Croon, 2008). 비록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아니지만 Carbonell et al.(1998)도 청소년(late adolescent)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에서 우울증상이 있는 집단과 다른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집단, 그리고 정상인 집단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 집단 구성원들의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지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증상이 있는 집단에서 가족의 응집력과 사회적 지지가 특히 적응유연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가족 및 사회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응유연성이 높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Hardy et al.(2004)도 생활상에서 개인적 질병, 가족 또는 친구의 사망 등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응유연성 연구에서 높은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기능적, 심리사회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Richardson(2006)에 의하면 적응유연성을 갖는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 더 강력한 사회적 지지들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 사별 노인 가운데 적응유연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친구들과 가족구성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배경으로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우울정도가 높으면 적응 유연성이 낮아지고, 비록 우울정도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절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지지가 수반된다면 높은 적응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게 된다<sup>5)</sup>. 본 연

---

5) 일반적으로 우울은 사별에 대한 병리적인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배우자 사별 후 적응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적응유연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사별로 인한 고위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울정도가 낮은 노인을 심리적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요컨대, 적응유연성이 발달단계와 상황적 맥락에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울은 노년기 적응유연성을 살펴보는 유용한 영역이며, 배우자 사별이라는 위험상황에서도 보다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찰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본다.

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생애 스트레스 관련 구성요인들 간 관계를 규명해 보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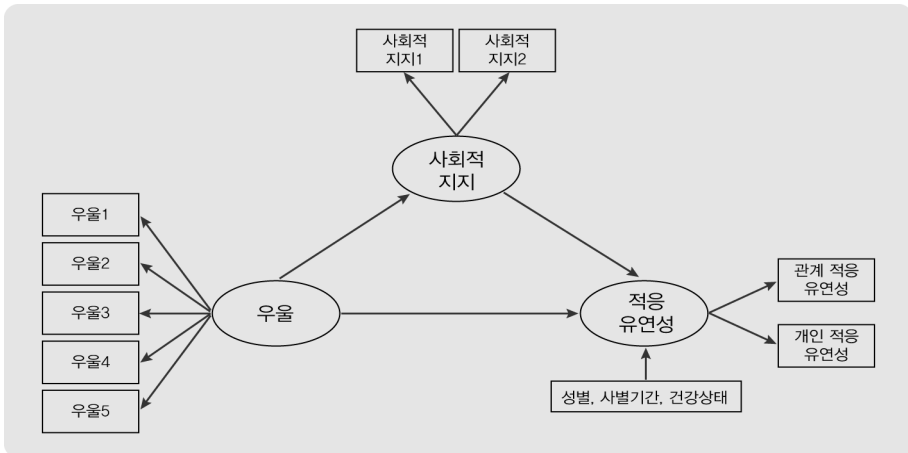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사별로 인한 우울이 노인의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가 우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잠재변수인 우울은 5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실제경험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 2개를 측정변수로 살펴보았다. 적응유연성 변수는 관계 적응유연성과 개인 적응유연성으로 구분하고, 통제변수로 성별, 사별기간,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자료수집 및 표본추출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 및 보호요인이 노인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 사별 노인의 적응유연성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서베이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북 K시 19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배우자와 사별을 경험한 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배우자 사별 노인에 대한 확률표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확률 표집 방법인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였다. 즉, K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단 및 읍면동 사무소 관계자의 협조로 사전에 알고 있는 배우자 사별 노인을 통해 다른 배우자 사별 노인들을 소개받음으로써 연구대상을 확대하였다.

한편, 자료 수집은 사별경험이라는 연구주제의 특성상 노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조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시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50명을 조사원으로 선정하였고, 이들 조사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 및 설문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노인들을 직접 만나 면접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읽어 주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sup>6)</sup>.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3. 주요변수

### 가. 적응유연성

배우자 사별 노인의 적응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이다. CD-RISC는 총 25문항으로 관계 탄력성과 개인탄력성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종종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

6) 본 연구에서 배우자 사별노인에 대한 접근성, 응답률 제고 등을 고려하여 노인돌보미사업단의 노인돌보미를 주요 조사원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노인복지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 조사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원에 대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의 편기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본 연구의 조사상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측정되었고,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개발자가 적응유연성을 성공적인 스트레스 대처능력으로 규정하여 사용한 척도이며, 개인적인 확신과 목적지향,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내와 강인함, 변화에 대한 긍정성과 안정적인 관계, 개인적인 통제성, 영적 대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개발 당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9이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Lamond et al.(2009)에서의 신뢰도는 0.92로 높게 나타났으며, 김기태·박미진(2005) 연구에서 신뢰도는 0.9175로 중증도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Lamond et al.(2009)에 수록된 CD-RISC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어로 된 원문 척도사용의 타당화 과정을 위해 영어로 된 원문을 연구자와 사회사업 및 심리학 부전공 석사 졸업자로 15년 이상 영어권 국가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를 통해 우리말로 번역한 후, 영문과 석사졸업 및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영어교사 7년차 현직 영어교사에게 의뢰하여 영문 번역 한 후에, 이를 원문과 대조하는 작업(back translation method)을 통해 수정 보완 하였다. 본 연구는 CD-RISC 척도의 하위요인인 관계탄력성과 개인탄력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95이었다.

## 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Lin & Ensel(199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두 개의 하위요인 합이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실질적인 역할 기능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이 총 20문항으로 측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4문항을 제외한 16문항을 측정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6문항은 현재 노인들이 처한 위험 상황에서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정도(Perceived crisis support)와 그 상황에 대한 실제경험(Actual crisis support)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사회적 지지 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과 실제경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1점), '있긴 하나 쉽지 않았다'(2점), '있었다'(3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다. 우울

우울에 대한 측정은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Yesavage(1983)이 개발한 노인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로 약칭)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이후 Sheikh & Yesavage(1986)가 단순화 하여 GDS Short Form 15 문항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것을 기백석과 이철원(1996)이 번역하여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한국 노인들의 우울을 검사하는데 문항수가 적어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사를 통해 5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개발 당시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7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로 성별, 사별기간,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투입되었으며, 사별기간은 1년을 단위로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였고,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과 적응유연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고<sup>7)</sup>, 본 연구에서는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chi^2$ ,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

7)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 우울증과 적응유연성 사이를 매개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나, 다른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 내지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IV.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은 배우자 사별 남성노인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13.0%를 차지했고, 여성 노인은 전체의 87.0%였으며, 조사 대상 노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70~79세 미만이 62.0%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 25.0%, 65~65세 미만 11.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52.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한학 이상 중졸 이하가 40.0%, 그리고 고졸 이상이 7.5%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인 경우가 49.0%, 40만원 이상~59만원 미만사이가 18.0%, 그리고 20만원 미만인 노인이 전체의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이 47.0%, ‘보통이다’는 31.5%, 그리고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7.0%에 해당되었다. 배우자 사별기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80% 정도가 사별 후 4년 이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정의 및 기술통계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종속변수인 적응유연성은 관계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으로 구분되며, 5점 리커트 척도 측정되었다. 관계 적응유연성의 총합 점수는 0~20점까지이며, 평균 15.33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고, 개인 적응유연성 역시 총합점수가 0~100점까지이며 평균 62.04로 나타나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총합점수는 각각 1~24점까지이다. 사회적 지지1은 평균 18.52점이고, 사회적 지지2는 평균 15.97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이분변수이고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합점수는 0~5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평균은 3.30로 중간점수보다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계
성별	남	26	13.0	200(100%)
	여	174	87.0	
연령	65~69세 미만	22	11.0	200(100%)
	70~79세 미만	124	62.0	
	80세 이상	50	25.0	
	무응답	4	2.0	
교육수준	무학	105	52.5	200(100%)
	한학~중졸	80	40.0	
	고졸 이상	15	7.5	
월평균 가구소득	20만원 미만	21	10.5	200(100%)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98	49.0	
	40만원 이상~59만원 미만	36	18.0	
	60만원 이상~79만원 미만	8	4.0	
	80만원 이상	16	8.0	
	무응답	21	10.5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34	17.0	200(100%)
	비교적 나쁘다	94	47.0	
	보통이다	64	31.5	
	비교적 좋다	7	3.5	
	매우 좋다	2	1.0	
사별기간	1년 미만	38	19.0	200(100%)
	1년 이상~2년 미만	45	22.5	
	2년 이상~3년 미만	41	20.5	
	3년 이상~4년 미만	33	16.5	
	5년 이상	36	18.0	
	무응답	7	3.5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		변수정의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적응유연성	관계적응유연성	연속변수	5	15.33(19.77)
	개인적응유연성		20	62.04(16.3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1	연속변수	8	18.52(4.55)
	사회적 지지2		8	15.97(4.96)
우울		이분변수	5	3.30(1.90)

## 2.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측정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이를 위해 잠재변수인 사별 어려움, 적응유연성, 우울과 각각의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CFI=.977, TLI=.966, RMSEA=.064로 모형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의 요인적 재량이  $p<.0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각각의 잠재변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측정모형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C.R
적응유연성	→ 관계 적응유연성	1.000	.899***	-
	→ 개인 적응유연성	3.894	.962***	10.147
사회적 지지	→ 사회적 지지1	1.841	1.000***	8.105
	→ 사회적 지지2	1.000	.498***	-
우울	→ 우울1	.998	.702***	9.074
	→ 우울2	1.223	.909***	11.162
	→ 우울3	1.099	.759***	9.743
	→ 우울4	.972	.739***	9.510
	→ 우울5	1.000	.690***	-

\*\*\* $p<.001$

##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들과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가 적절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연구문제 1)과 우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연구문제 2) 확인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904, TLI=.881,

RMSEA=.091이었으며, 우울은 적응유연성에 -2.328의 부적 영향을 미치고( $p<.01$ ), 사회적 지지는 적응유연성에 .531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다음,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그림 2]와 같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살펴보았다.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FI=.912, TLI=.889, RMSEA=.088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p-value	CFI	TLI	RMSEA
측정모형	132.852(42)	.000	.912	.889	.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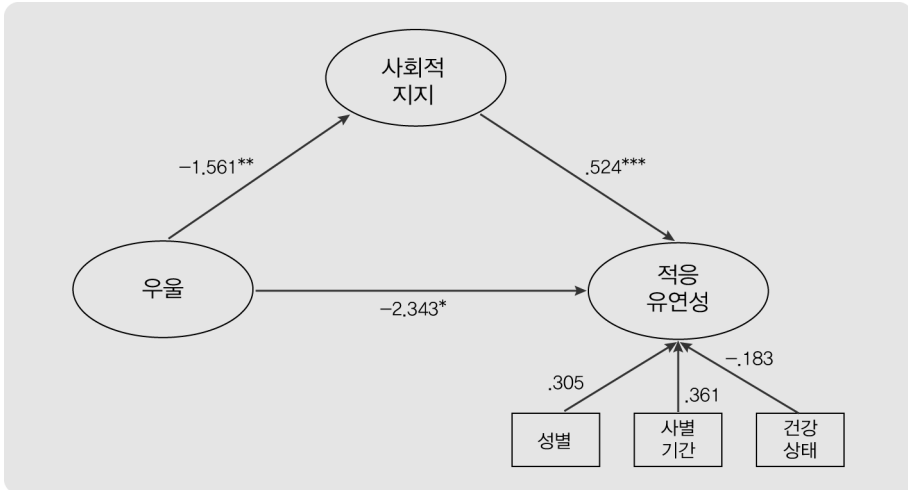
매개효과 모형의 경로계수는 비표준화(표준화) 값의 형태로 표시하였으며, 모든 잠재변수 간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표 5>과 [그림 2]를 통해 우울이 사회적 지지에 -1.561의 부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가 적응유연성에 .524의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울이 적응유연성에 -2.343의 부적 영향을 미치고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구조모형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C.R
적응유연성	← 우울	-2.343	-.193*	-2.581
	← 사회적 지지	.524	.316***	3.882
사회적 지지	← 우울	-1.561	1.000***	-2.694

\* $p<.05$ , \*\*\* $p<.001$

그림 2. 적응유연성 매개효과 모형



한편, 우울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Sobel의 매개효과 검증공식<sup>8)</sup>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참조).

표 6.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표준화	T-value
우울 → 사회적 지지 → 적응유연성	-.818	-.068	-4.311***

8)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공식(Sobel test): (a는 독립변수→매개변수의 경로계수, b는 매개변수 → 종속변수의 경로계수, SE는 표준오차임. a = -1.561, b = .524, SEa = .579, SEb = .135)

$$Z_{ab} = ab / \sqrt{b^2 SE_a^2 + a^2 SE_b^2}$$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배우자 사별로 인한 우울이라는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노인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적응유연성에 관심을 갖고 노인의 우울과 적응유연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라북도 K시 19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배우자 사별 노인 200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PSS 12.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은 그들의 적응유연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적응유연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적응유연성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통해 우울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적응유연성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사별이라는 노년기 상실로 인해 높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어떻게 나머지 자신의 생애과정에 적응해 가며 살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년기 적응유연성(resilience)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별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유연성을 살펴보았다. 비록 본 연구가 노인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우울의 직접효과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한 우울의 간접효과를 확인하는데 머물렀지만, 대부분의 적응유연성 연구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노인의 우울증과 적응유연성과의 부정적 관계 규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적응유연성은 역경이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유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빈곤, 학대 등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적응유연성 개념은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위험상황에 처한 어느 집단에서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집단보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상황에 처한 노인에게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로 인해 우울이라는 심리적 위험상황에 처한 노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특성, 즉, 노인의 적

응유연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최근 성공적 노화에 초점을 둔 노인연구 흐름에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노인의 발달과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증과 적응유연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서 새로이 밝혀진 부분이 바로 노인의 우울과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 연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울과 사회적 지지간의 기존 논의의 대부분은 주로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에 긍정적 내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우울과 같이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라는 연결망과의 관계도 소원해 질 수 있다는 전제(Blazer, 1983; Kim, 2002; Wilby, 2011)로 분석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적응유연성을 우울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요인으로만 보고 있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적응유연성이 우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사회 및 정신적 특성 요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데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Blazer(1983: 162)도 강조하고 있듯이 개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정신적 특성들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개인이 갖고 있는 복잡한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개입의 목적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들 간의 관계 규명에 있어서도 기존의 관계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때로는 역관계(reversed relationship)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노인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론적, 경험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 노인이 사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적응유연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예측요인으로써 우울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배우자 사별노인의 적응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에게 신속한 치료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노년기 우울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노인은 삶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잃은 채,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겨를도 없이 자살생각 등 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Waern et al., 2003). 따라서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노인에게는 우울 등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우울정도가 나타날 경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배우자 사별 노인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과 이들을 위한 개입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인연구 가운데는 특히 배우자 사별에 관한 실증연구는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배우자 사별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혼자 사는 노인인가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적 측면에서 배우자 사별로 인한 이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들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우울이라는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우울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증의 위험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우울이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인의 우울 정도와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 정도간의 관계가 부적(negative)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로 미뤄볼 때, 노인들에 대한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우울 치료단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역할들 가운데 특히 다음의 두 가지를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이들 노인들 스스로가 친구나, 가족, 혹은 기타 다른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활동(예를 들어 교회 가기나 경로당 가기 등)을 포기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울증이 높은 노인들일수록 낮은 사회적 지지정도를 보이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Wilby, 2011).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배우자 사별 경험노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배우자 사별노인에 대한 또래방문(peer visiting) 프로그램의 실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자, 이웃 주민들을 통한 일대일 방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만약 본 연구에서처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우울로 인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존의 사회적 지지연결망을 담당했던 지지자원이 우울증에 걸린 노인으로부터 이탈될 수도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Blazer, 1983)를 고려해 본다면 배우자 사별이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인 주변의 사회적 지지자원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한 개입과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가족구성원들이나 친구 등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배우자 사별 경험 이후 노인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가능성 및 이의



결과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개입 프로그램이 노인 우울 치료프로그램과 동시에 시행된다면 사회적 지지자원으로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사용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 도구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해 온 사회적 지지원에 대한 노인 자신의 인지적 측면(perceived crisis support)만을 질문한 것에서 더 나아가 노인 개인이 위협 상황에서 경험한 실질적 사회 지지(actual crisis support)에 대한 경험을 질문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적 측면 및 실질적 측면에서의 기능 모두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주고, 적응유연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우울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울과 사회적 지지, 우울과 적응유연성 간 상호인과관계를 고찰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횡적조사로 인한 연구의 한계로 변수간 인과관계를 확인 하는데 전제가 되는 변수간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변수들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보한 후 변수간 상호인과관계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변수선정 측면에서 사별 노인의 다양한 어려움과 보호요인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적응유연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사를 통해 우울증 측정 15문항 중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전체 우울증 척도 문항 가운데 일부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개념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시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표본선정이 전라북도 K지역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지역의 배우자 사별 경험 노인들에게까지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이점 역시 추후에는 다른 지역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 영역을 확대해서 연구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신열은 루이지애나 주립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이며, 현재 노인복지, 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ykim@jbnu.ac.kr)

김순규는 전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 청소년 복지 등이며, 현재 적응유연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oongyu@jbnu.ac.kr)

서효정은 전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 했으며, 현재 순천제일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 등이며, 현재 노인 우울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welfareseo@hanmail.net)

## 참고문헌

- 강유진(2004). 한국 여성 노인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pp.49-82.
- 기백석, 이철원(1996).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회*, 35(2), pp.298-307.
- 김기태, 박미진(2005). 여성 노인의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과의 관계-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29, pp.71-90.
- 김선영(1991). 미망인의 가족스트레스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McCubbin의 Doublex ABCX 모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김승연, 고선규, 권정혜(2007). 노인집단에서 배우자의 사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pp.573-596.
- 김신열, 장영은, 서효정(2011). 노인결혼만족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우울을 매개로 하여. *한국노년학*, 31(2), pp.305-319.
- 김태현, 한혜신(1996).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재혼노인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16(1), pp.18-38.
- 박미진(2006). 노인우울 예방을 위한 탄력성 증진모형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손의성(2007). 배우자 사별노인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pp.289-322.
- \_\_\_\_\_(2008). 배우자 사별 노인의 종교참여와 대처자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pp.183-204.
- 송미령, 김은경, 유수정(2010). 재가노인의 일상생활능력, 사회적지지 및 자기 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우울 의심노인과 정상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 pp.61-80.
- 이미애, 남기민(2007).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매개로 한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생각간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34, pp.307-325.
- 이영자(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 임연옥, 박재연, 윤현숙(2010). 배우자 사별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변화와 그 예측 요인. *노인복지연구*, 50, pp.123-144.
- 전길양, 김정옥(2000). 배우자 사별노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기정학회지*, 38(1), pp.155-170.
- 정미경, 이규미(2010).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낙관주의 및 적응유연성의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30(2), pp.629-642.
- 통계청(2010). 15세 이상 연령 및 성, 혼인 상태별 인구현황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http://www.kosis.kr/abroad/abroad\\_01List.jsp](http://www.kosis.kr/abroad/abroad_01List.jsp)에서 인출.
- Atchley, R. C.(1994). Dying, death, bereavement and widowhood. *Social Forces & Aging.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pp.339-357.
- Bankoff, E. A.(1983).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1, pp.827-839.
- Bennett, K. M.(1997). Widowhood in elderly women: the medium- and longterm effects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Mortality*, 2(2), pp.137-148.
- Blazer, D. G.(1983). Impact of later-life depression on social network.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2), pp.162-165.
- Brown, S. L., Brown, R. M., House, J. S., Smith, D. M.(2008). Coping with spousal loss: Potential buffering effects of self-reported helping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6), pp.849-861.
- Carbonell, D. M., Reinherz, H. Z., Giaconia, R. M.(1998). Risk and resilience in late adolescenc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5(4), pp.251-272.
- Carnelley, K. B., Wortman, C. B., Kessler, R. C.(1999). The impact of widowhood on depression: Findings from a prospective survey. *Psychological Medicine*, 29, pp.1111-1123.
- Ensel, W. M., Lin, N.(1991). The life stress paradig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32, pp. 321-341.
- Felten, B. S., Hall, J. M.(2001). Conceptualizing resilience in women older than 85.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1, pp. 46-53.

- Futterman, A., Gallagher, D., Thompson, L. W., Lovett, S., Gilewski, M.(1990). Retrospective assessment of marital adjustment and depression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spousal bereavement. *Psychology and aging*, 5, pp.277-283.
- Guiaux, M., Tilburg, T. V., Groenou, M. B. V.(2007). Changes in contact and support exchange in personal networks after widowhood. *Personal Relationships*, 14, pp.457-473.
- Hardy, S. E., Concato, J., Gill, T. M.(2004). Resilience of Community-Dwelling Older Persons.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2, pp.257-262.
- Connor, K. M., Davison, J. R. T.(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 pp.76-82.
- Kim, S.(2002).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on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ong Korean American older adults in Chicago metropolitan a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Baton Rouge: LA.
- Koren, C., Lowenstein, A.(2008). Late-life widowhood and meaning in life. *Aging International*, 32, pp.140-155.
- Lamond, A., Depp, C. A., Allison, M., Langer, R., Reichstadt, J., Moore, D. J., et al.(2009). Measurement and predictors of resilience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wome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3(2), pp.148-154.
- Lin, N., Ye, X., Ensel, W. M.(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4), pp.344-359.
- Lopata, H. Z.(1993). The support system of American urban widows. ed. by Strobe, M. S., Strobe, W. & Hansson, R. O. *In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381-39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nd, D. A., Casterta, M. S., Dimond, M. F.(1986). Gender differences through

- two years of bereavement among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6(1), pp.101-107.
- Luthar, S. S., Cicchetti, D.,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pp.543-562.
- Mehta, M., Whyte, E., Lenze, E., Hardy, S., Roumani, Y., Subashan, P., et al. (2008). Depressive symptoms in late life: associations with apathy, resilience and disability vary between young-old and olde-old.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3, pp.238-243.
- Morgan, L. A.(1989). Changes in family interaction following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pp.323-331.
- Norris, F. H., Murell, S. A.(1987). Older adult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before and after bereavement. *Journal of Gerontology*, 42(6), pp.606-612.
- Olsse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and Sawyer, S.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pp.1-11.
- Parkes, C. M.(1988). Bereavement as a psychosocial transition: Processes of adaptation to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s*, 44, pp.53-65.
- Pitcher, B. L., Larson, D. C.(1989). *Elderly Widowhood*(pp.59-81). In Bahr, S. J. & Peterson, E. T.(eds), *Aging and the Family*. Lexington Books.
- Richardson, V. E.(2006). Widowhood. In R. Schulz, L. S. Noelker, K. Rockwood, & R.L. Sprott(Eds.), *The Encyclopedia of Aging* (pp.1226-1230). 4th ed.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Rossi, N. E., Bisconti, T. L.(2007). The role of dispositional resilience in regaining life satisfaction after the loss of a spouse. *Death Studies*, 31, pp.863-883.
- Rudkin, L.(2006). Social support. In R. Schulz, L. S. Noelker, K. Rockwood, & R. L. Sprott(Eds.), *The Encyclopedia of Aging*(pp.1121-1126). 4th ed.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Rutter, M.(1999). Resilience concepts and finding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y. *The Association for Family Therapy*, 21, pp.119-144.
- Schoon, I., Bynner, J.(2003). Risk and Resilience in the Life Cours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Journal of Youth Studies*, 6(1), pp.21-31.
- Smith, P. R.(2009). Resilience: resistance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pp. 829-837.
- Tower, R., Kasl, S.(1996). Gender, Marital close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couple. *Journal of Gerontology*, 51(3), pp.115-129.
- Umberson, D., Worthman, C. B., Kessler, R. C.(1992). Widowhood and Depression: Explaining Long-Term Gender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pp.10-24.
- Waern, M., Rubenowitz, E., Wilhelmson, K.(2003). Predictors of suicide in the elderly, *Gerontology*, 49(5), pp.328-334.
- Wallace, K. A., Bisconti, T. L., Bergeman, C. S.(2001). The mediational effect of hardiness on social support and optimal outcomes in later lif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3(4), pp.267-279.
- Wilby, F.(2011). Depression and social networks in community dwelling elders: A descriptive stud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4(3), pp.246-259.
- Wilks, S. E., Croom, B.(2008). Perceived stress and resilience in Alzheimer's disease caregivers: Testing moderation and mediation models of social support. *Aging & Mental Health*, 12(3), pp.357-365.
- Wilks, S. E., Spivey, C. A.(2010). Resilience in undergraduate social work student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academic stress. *Social Work Education*, 29(3), pp.276-288.
- Zisook, S., Shuchter, S. R.(1991). Depression through the first year after the death of a spous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10), pp.1346-1352.

# Depression and Resilience in Late Life Widowhood : Testing Mediation Model of Social Support

**Kim, Shiny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im, Soongy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eo, Hyojeong**

(Suncheon First Colleg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resilience in late life of widowhood.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is sample was based on 200 widow and widower aged over 65 living in K city, Jeollabuk-Do. A sampling method was the snowball sampling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and an analysis method wa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ults testifi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function of social support had direct and positive effects on the resilience, while the depression had directly impacted on resilienc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support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resilience. This study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s documenting the impact of depression on resilience of subjects, as verifying mechanism of social support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demonstrated in an empirical way. Not only that, but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politic implication through these results.

---

**Keywords:** Resilience, Social Support, Depression, Mediation Effect